

# 5.22 전국농민대회 '이명박 규탄'

8 노동과세계 | © 승인 2008.05.22 15:02

## 미국산쇠고기수입협상무효, 한미FTA반대 외치며 이명박정권 살농정책 성토

[사진5]

22일 서울여의도, 전국에서 상경한 1만5천여 명의 농민들이 집결해 이명박정권의 살농정책을 강하게 규탄했다.

상경 농민들은 미국산광우병쇠고기 수입 결사반대, 한미에프티에이 반대를 외치는 농민들은 최근 이명박 정부의 반농정책을 신랄하게 규탄하며 '국회로 가자, 이명박 믿으면 쪽박찬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전국농민대회가 150여 분 경과한 시각, 오후 4시25분경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한미에프티에이 조속비준 촉구 농성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농민들의 분노를 샀다.

또 대통령 이명박이 이날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지만 농민들은 "도대체 숨 쉬는 것만 빼고 말하는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고 성토했고 기름값, 사료값 폭등에 따른 어려운 농경 현실을 토로했다.

[사진7]

[사진11]

전국농민대회는 대회 끝 무렵 '한미쇠고기협상 무효화, 한미FTA반대, 농민생존권쟁취' 결의문을 참가자 일동 명의로 채택하고 김덕윤 전여농 회장, 우정규 한여농 회장, 조희숙 생활개선중앙회 회장, 김귀숙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회장이 공동낭독했다.

결의문은 "오늘 우리 350만 농민들은 무너져가는 가슴을 부여잡고 이 자리에 모였다"며 "비료값, 사료값이 치솟아 생산비를 상승시키고 있으며, 정부의 농업말살, 농업포기 정책 때문에 농산물가격은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농촌 상황을 설명했다. 결의문은 또 "특히 미국산쇠고기전면개방과 한미FTA 추진을 통한 정부의 농업시장개방은 멈출 줄 모르고 있다"고 규탄하고 "바쁜 농번기이지만 당면 농업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더 이상 농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전국농민대회는 농림수산물부 정운천 장관 해임과 한미쇠고기협상 책임자 처벌, 한미FTA 국회비준 즉각 중단, 이명박 대통령 대국민사과, 한미 쇠고기 협상 전면 무효화 재협상 실시, 광우병 안전특별법 제정, 한미FTA 국회비준 즉각 중단, 화학비료보조금 즉각 시행, GMO 옥수수 수입 즉각 중단, 비료&#8231;사료&#8231;면세유 값 폭등에 대한 특단 대책 마련, 조류인플루엔지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과 지원 확충, 식량자급률 법제화 등을 참가자 일동 명의로 공식 요구했다.

오후 5시경 전국농민대회를 마친 농민들은 서울청계천에서 열리는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문화제에 결합하기 위해 이동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경찰 119개 중대가 배치됐으나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청은 농민 상경을 지역 현장에서부터 저지하라는 별도 지침을 하달해 한때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었다.(▲서울청계천 촛불문화제 현장소식 이어집니다.)

[사진1]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6]

